『베오울프』에 내포된 구전문학의 요소와 한계*

이 동 일

차 례

Ⅰ. 들어가는 글
Ⅱ. 『베오울프』에 내재된 구전문학의 요소
Ⅲ. 『베오울프』에서 보여 지는 반복의 유형과 의미
Ⅲ-1. 장소와 결부된 영웅주의 행동철학: 영웅적 맹세와 복수 실현
Ⅲ-2. 구전문학의 답습과 그 한계: 운페르드 막간극을 중심으로
Ⅳ. 결론

Ⅰ. 들어가는 글

하바드 대학에서 구전문학에 대해 연구했던 밀만 파리(Milman Parry)와 알버트 비 로드(Albert B. Lord) 등은 유고슬라비아에서의 현장 답사를 통해 구전 문학의 특징을 발견하고 고대의 다양한 시에 이를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글 문화가 발달되기 전에도 고대의 시인들은 구술로서 시작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이러한 구술문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일련의 규칙성과 독특한 어휘 조합 그리고 일정한 운율구조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Lord 23). 하바드 학파들은 자신들이 분석한 일련의 자료들을 제시하며 영문학의 최초 고대영웅시로 간주되는 『베오울프』(*Beowulf*) 역시 이러한 구전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Lord 200). 본 연구에서는 『베오울프』에서 발견되는 밀만 파리 학파의 구전문학 요소들을 살펴보며 동시

* 이 연구는 2011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에 그 적용의 한계를 짚어 보고자 한다.[1] 이 과정에서 특히 하바드 학파가 주장한 구전 문학의 특징인 반복 효과를 중심으로 장소의 반복, 일정한 주제의 반복, 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상투적 문구,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어구, 시 전체를 구성하는 일정한 운율 등의 적용을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아울러 구전문학의 한계로 간주할 수 있는 요소들 인영웅주의를 둘러싼 심리적 갈등구조, 시의 외형인 두운과 이에 상응하는 어휘조합 그리고 이에 내재된 주제의 설정 등을 분석함으로서 기억과 즉흥 작시법에 상반되는 글 문학의 자취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베오울프』에 내재된 구전문학의 요소

하바드 학파가 호머(Homer)의 『일리아드』(*Iliad*)와 『오딧세이』(*Odyssey*)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에서 진행된 현장 연구를 통해 얻어낸 구전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반복이다. 이 반복은 긴 내용을 일관성 있게 엮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서 시인의 기억력을 효율적으로 유지시키는데 사용되는 특정한 운율과 어휘조합 그리고 주제와 소재의 설정에서 발견된다. 실제로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의 작품을 읽어보면 반복되는 상투적 문구(formulaic expression), 형용어구(epithet), 두운(alliteration)을 발견할 수 있으며 비슷한 장면의 설정과 함께 유사한 주제와 소재가 반복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운율에서는 두 번째 반행에서 핵심어인 목적어가 등장하는 등 매우 규칙적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반복의 관점에서 보면 『베오울프』를 비롯한 고대영시 작시법은 하바드 학파가 주장한 구전문학의 요소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이미 전해지는 이야기나 노래를 바탕으로 새로운 노래를 낭송하는 고대 시인의 시작술은 『베오울프』에서 직접 언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다름 아닌 '(나는 혹은 우리는)들었노라' *gefraegn* 라는 상투적 표현에서 발견되고 있다: "*þeodcyninga þrym gefrunon,*" ((우리들은) 왕들의

1) 이와 달리 클레이버(Fr. Klaeber) 교수는 『베오울프』가 어휘 조합과 반복된 요소들의 적용에 있어 서부게르만 전통을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Klaeber p. lxvi).

영웅적 업적을 들었노라., *Beo* 2)

『베오울프』의 시작에서 언급되는 이 부분은 향후 전개되는 노래(시)의 내용이 노래나 이야기로 전승된 구전문학의 전통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구전문학의 답습은 흐로드가르 왕의 시인이 베오울프의 영웅적 업적을 노래로 부르는 부분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Hwilum cyninges þegn,
guma gilphlæden,	gidda gemyndig,
se ðe ealfela	ealdgesegena
worn **gemunde,**	word oþer fand
soðe gebunden;	secg eft ongan
sið Beowulfes	snyttrum styrian
ond on sped wrecan	spel gerade,
wordum wrixlan;	(*Beo* 867b-874a)[2]

때때로 고대의 많은 노래를 잘 **기억하고 있는** 음악에 재질이 뛰어난 왕의 한 신하가 말들을 **교묘히 엮어** 새로운 이야기를 창안하여 **노래로 읊곤** 했노라. 이 시인은 베오울프의 위업을 **합당한 말들로 조합하여(혹은 변형하여)** 솜씨 있는 시작술(時作術)로써 **기교 있게 노래로** 만들어 능숙하게 부르기 시작했노라.[3]

이 부분에 관한 묘사는 밀만 파리가 주창한 구비문학 학설과 거의 일치하는 부분이다 (Lord 21). 즉, 1단계인 듣고 저장하는 단계(다양한 표현법과 어휘를 축적함)는 시인의 '잘 기억하고 있는'에 해당하며, 2단계인 조정단계는 습작 및 훈련단계로서 1단계에서 얻은 말의 보고(word-hoard)를 기반으로 하여

2) 본문에서 사용되는 고대영어 시구는 1950년 Klaeber 판에서 발췌한 것임. 우리말 번역은 연구자의 번역임.

3) 인용문에 첨부된 현대영어와 우리말 해석은 저자의 시도이며 고대영어의 정확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필요시 현대영어를 삽입하며 의미의 강조를 위해 볼드체를 사용하기로 한다.

시인 나름대로 어휘를 재구성하는 작업으로 시인의 경우 '합당한 말들로 조합하여'에 일치하며, 3단계인 청중 앞에서 낭송하는 것은 시인의 경우 '노래로 만들어'에 해당한다 할 수 있을 것이다.[4)]

상기 부분은 시인이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된 구전문학의 요소들, 예를 들면 운율, 구성상의 특징, 어휘조합, 주제의 형성 및 연결 등에 있어서 활용되는 작시의 틀을 적용하여 새로운 내용인 베오울프의 영웅적 업적을 노래하는 장면이다. 말만 파리를 비롯한 하바드 학파의 이론인 즉흥시의 면모를 지닌 구전문학의 전통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며 동시에『베오울프』역시 이러한 구전문학의 산물임을 암시하는 구절이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시의 내용을 수정 보완했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구전문학에서 강조되는 즉흥시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다.

하지만『베오울프』는 이러한 구전문학의 전통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암시에도 불구하고 구전문학의 한계를 넘어선 글 문학에서 보여 지는 요소들--주제의 형성과 주제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정교한 어휘 조합 그리고 일정한 두운의 적용에 필연적으로 소요되는 정교하고 장구한 퇴고의 과정--이 시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4) 하바드 학파가 주장한 '저장-조정-낭송'의 3단계는 비드가 전한『캐드먼의 찬송가』(*Caedmon's Hymn*)에서도 발견된다.
캐드먼은 들어서 배운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기억 속에 저장하고(1단계 저장에 해당) 청결한 동물같이 되새김질하여(2단계 조정의 단계) 모든 것을 감미로운 선율로 바꿔 놓았다(3단계 노래로 낭송).
Onf he eal, tha he in gehyrnesse geleornian meahte, mid hine gemyndgade; ond swa swa claene neten eodorecende in paet sweteste leoth gehwerfde.
The Old English Version of *Bede's Ecclesiastical History of the English People*. Ⅳ. 24 ed. by Thomas Miller, EETS (London, 1890)
이러한 기억에 의존하여 시작을 하는 구전문학의 전통은 호머의 <오딧세이>에서도 발견된다: <Odyssey>, Book VIII (the Phaeacian Games): '시인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오디시우스와 아킬레스 사이의 설전을 담은 가사의 한 구절을 선택하여 읊기 시작했노라.'(Odyssey 142)

III. 『베오울프』에서 보여 지는 반복의 유형과 의미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와 『베오울프』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유사점은 반복되는 장소의 설정을 들 수 있다. 『베오울프』에서 보여 지는 장소의 반복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시의 전개에 필요한 장소의 설정과 다른 하나는 주어진 부분 혹은 전체 시를 관통하는 특정한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반복된 장면의 설정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해변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덴마크 왕국에 괴물이 침입하여 왕국을 초토화 시킨다는 말을 들은 베오울프는 덴마크 왕국을 구하기 위해 14명의 정예용사를 선발하고 배를 진수시켜 덴마크 해안에 당도한다. 이윽고 해안경비대장의 검문을 통과하고 덴마크의 왕인 흐로드가르(Hrothgar) 왕을 만나기 위해 왕궁인 헤오로트(Heorot)로 향한다(210-228). 이러한 베오울프와 그의 용사들의 이동은 덴마크에서의 모험이 성공적으로 끝나자 고국인 예이츠국(Yeats)의 해안에 당도하여 군주인 히옐락왕을 알현하기 위해 궁으로 향하는 장면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1963-76). 이와 같은 장소의 반복은 시의 신속한 전개를 위해 도입된 주인공들의 이동을 묘사하는 영웅시의 무대를 설정하는 역할 외에 주제나 모티브를 형성할 만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베오울프』시에서 반복되는 장소인 바다(호수, 강을 포함)는 특정한 주제 혹은 모티브를 구현하고자 하는 시인의 의도에 걸맞은 문학적 장치로 간주된다. 첫 번째 바다의 등장은 위에서 언급한 베오울프와 그의 용사들이 덴마크를 구원하기 위해 행한 바다항해의 배경이다. 이 부분은 시적 묘사가 두드러지는 장면으로서 순조롭게 항해하는 배의 모습을 통해 베오울프 일행의 모험이 순조롭게 마무리 될 것을 암시하는 전조로 간주된다(Chickering 243). 동시에 이 부분은 베오울프의 뛰어난 항해술(lagcræftig mon 209) 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 역시 향후 물(바다)을 배경으로 전개 되는 제반 모험이 승리로 마무리 될 것을 암시하게 된다. 이러한 수영 모티브는 베오울프의 수영 실력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으로 간주되며 수영실력의 차원을 넘어선 바다 혹은 호수(물)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싸움에서 우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을 암시한다. 바다를 배경으로 하는 베오울프의 수영실력은 그가 브레카(Breca)와 겨룬 수영 실력(529-581)과, 히옐락

왕의 프리지안(Frisian) 족과의 전투 마지막 전투에서 30명의 무구를 지니고 바다 수영을 통해 피신한 장면(2359-2366)에서 발견된다. 수영실력은 곧 바로 수중 전투력과 결부되어 전천후 전투력을 겸비한 완전한 용사의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베오울프가 덴마크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영웅적 업적은 일차적으로 그렌델(Grendel)의 격퇴에 있지만 예기치 않던 호수에 거주하는 그렌델의 어미를 격퇴함으로써 그의 모험은 마무리 되게 된다. 호수에 거하는 그렌델 어미와의 전투(1383-1472)는 수중 실력을 전제로 하는 수중 전투력을 의미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수중 전투력은 브레카 에피소드에서 먼저 암시되고 있다(529-581).

III-1. 장소와 결부된 영웅주의 행동철학: 영웅적 맹세와 복수 실현

반복된 장소의 등장은 영웅주의 핵심 행동규범인 보물하사, 충성맹세, 복수 등의 에토스와 연합하여 단순한 장소의 설정이 아닌 시의 핵심 주제를 형성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작용하게 된다.『베오울프』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장소는 바로 향연장이다. 로드에 의하면 주제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도입된 시의 외형에 속하는 요소들, 예를 들면 구성과 어휘 조합 및 운율 등은 주제와 별개로 존재하지 않으며 일관된 지속성을 지니면서 반복된다고 주장한다(Lord 199). 이러한 하바드 학파의 주장에 가장 잘 어울리는 부분은『베오울프』에서 보여 지는 향연장의 반복이다. 향연장의 반복에는 참석자들의 여흥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도 있지만 여기에는 영웅주의 사회에서 강조되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의 주요 요소인 충성맹세, 군주의 자질을 입증하는 보물하사, 복수의 실현 등과 같은 모티브 주제가 반복해서 나타난다. 향연장을 중심으로 영웅적 결의가 행해지는 것은 다름 아닌 향연장이 지닌 공개적 장소의 의미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이다. 진정한 영웅은 향연장에서 행한 자신의 맹세(말)를 실제 전투 현장에서 행동으로 옮겼을 때 탄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한 용사의 맹세를 청취한 향연장의 동료 용사들은 그 용사가 보여준 말과 행동의 일치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덴마크에 도착한 베오울프는 세 번에 걸쳐 향연장에 초대되어 향응(饗應)을 제공받게 된다. 첫 번째는 덴마크를 구하겠다

는 베오울프의 영웅적 정의감에 감동한 흐로드가르 왕이 베오울프를 환대하기 위한 향연이고, 두 번째는 베오울프가 괴물 그렌델을 격퇴하자 그의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베풀어지며, 세 번째는 임무를 완수한 베오울프가 덴마크를 떠나려 하자 마련된 향연이다. 이와 같이 시의 전반부는 주인공 베오울프를 중심으로 그의 모험의 진척 및 성취도에 따라 향연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 하지만 향연장은 주인공 베오울프의 진정한 영웅상 혹은 정체성의 정립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작품 속에서 그리고자 하는 영웅주의 사회의 총체적 양상을 대변하는 구실도 겸하게 된다.

이러한 향연은 영웅주의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상사이며 일차적으로 향연에 참석한 자의 기분 전환 혹은 여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충족을 위한 술과 음악의 출현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 술을 마시며 즐기는 향연장의 이러한 기능은 사용된 어휘의 조합에서 여실히 입증된다. 영웅시 『베오울프』에서 헤오로트 궁궐(향연장)은 다양한 복합명사로 묘사되어진다. 이러한 다양성은 향연장이 획일적인 기능을 뛰어넘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영웅주의 사회인 코미타투스(comitatus)의 홀은 용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며 향연을 즐기는 장소 외에도 외환과 내환으로 인한 전투 장소가 되기도 한다. 이런 요인 때문에 향연장은 *guðsele*(war-hall, '전투 홀,' 443)이라 불린다. 이 외에도 향연장은 *hringsele* (ring-hall, 2840), lord-hall, *goldsele*(gold-hall, 1639), *gifhealle* (gift-hall, 837), *gestsele*(guest-hall, 994), *gifstol* (gift-seat, 2327)로 불린다. 향연장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두 개의 주요한 에피소드로서 『핀 에피소드』(*Finn Episode*)와 『잉겔드 에피소드』(*Ingeld Episode*)를 들 수 있는데 여기서 인용되는 향연장은 고대 영웅주의 사회에서 보여 지는 여인의 역할과 영웅주의 행동규범인 복수에토스를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 비극적이고 무기력한 여성상의 전형은 힐데브르흐(Hildeburh)의 비극을 다룬 『핀 에피소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1068-1159b). 힐데브르흐는 이전 덴마크 왕 호크(Hoc)의 딸이며 그 당시 덴마크 왕궁의 통치자인 흐네프(Hnæf)의 여동생으로서 덴마크와 주트족(프리지안족) 사이의 분쟁을 타결키 위해 주트족 왕 핀에게 시집보내졌다. 정략결혼을 통한 평화 협정이 실패로 끝나게 되자 그녀는 자신의 종족들에 의해 본국으

로 돌아오게 된다. 『퓐 에피소드』는 영웅주의 사회에서 여성이 정략결혼의 담보물로 전락하는 여성의 수동적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영웅주의 핵심 행동철학인 복수 에토스를 다루고 있다. 일군의 덴마크 용사들이 정략결혼으로의 일환으로 주트 족에게 시집간 힐데브르흐를 방문하기 위해 주트족을 방문하게 된다. 이어서 퓐의 궁궐에서는 덴마크와 주트족 사이에 향연이 벌어진다. 하지만 향연장은 일시에 피비린내 나는 전투장으로 돌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힐데브르흐는 오빠인 흐네프를 잃게 된다. 예기치 않은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주트족의 지도자인 퓐(힐데브르흐의 남편)은 덴마크인들에게 평화협정을 제시한다. 퓐의 제안은 덴마크인들이 주트에 머무르는 동안 주트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적국인 주트인들이 제시한 평화협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매우 굴욕스러운 것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는 덴마크인들은 그 협정을 받아들인다. 주트에 머무르는 동안 헹게스트(Hengest: 흐네프의 신하로써 살아남은 덴마크 용사들 중 선임 장수)는 심한 갈등에 빠지게 된다. 즉, 헹게스트는 평화협정을 준수하겠다는 퓐에 대한 맹세와 죽은 군주인 흐네프에 대한 복수심 사이에 갈등을 겪으며 복수의 기회를 엿보게 된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본국인 덴마크로부터 증원군을 얻은 헹게스트는 염원했던 복수를 하게 된다. 두 종족 사이에 다시 전투가 발생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힐데브르흐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그녀는 덴마크인들에 의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다.[5)]

이와 같이 향연장을 배경으로 전개되는 수동적 이미지의 여인상과 복수에토스는 『잉겔드 에피소드』에서도 반복된다(2020-66). 덴마크에서 무용을 과시하고 승리를 거둔 베오울프는 본국으로 돌아와 왕인 히옐락 앞에서 자신의 무용담을 전하게 된다. 덴마크 왕인 흐로드가르는 적국인 헤아드바드(Heathobard)와의 화평을 위해 딸인 프레아와루를 잉겔드와 혼인시킨다. 잉겔드와 혼인한 프레아와루(Freawaru)는 잉겔드의 궁정에 당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프레아와루를 동행했던 덴마크 용사들은 향연장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

5) 복수를 기반으로 하는 헹게스트의 갈등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의 저서를 참조하기 바람.
H. M. Ayres. "Finn Episode." JEGP 16(1917), 282-95. A. G. Brodeur. *The Art of Beowulf*.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1, p. 120-121.

들은 헤아드바드족의 옛 용사들이 사용했던 무구를 걸치고 있었다. 이를 알아차린 헤아드바드의 젊은 용사들이 선친들의 무구가 적국인 덴마크 용사들의 소유가 되었음을 발견하고 격분하게 된다. 두 종족 사이엔 전투가 발생하게 되고 향연장은 일순간 전투장으로 돌변하게 된다. 덴마크의 공주인 프레아와루가 흐로드가르의 정략적 결혼의 희생양 내지 평화의 담보물로 이용되고 있음은 mid ðy wife 에서 암시되고 있다. Mid ðy wife의 문자적 해석은 "그 여인을 도구로 하여"인데 이러한 '도구'의 의미는 고대영어 정관사인 ðy(that)가 남성과 중성 명사(예: wif)의 도구격(instrument case)으로 사용되는데서 끌어낸 것이다. 이러한 도구격 ðy의 사용은 매우 의도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남성들의 복잡한 정치구도 속에서 여인이 물건내지는 정략적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6)

이와 같이 두 번에 걸쳐 향연장은 영웅주의 사회의 주요한 행동철학인 복수에토스를 실현하는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재 면에서 두 편의 에피소드는 남권주의 사회에서 여인이 남자들의 정략적 도구로 사용되는 여인들의 수동적 이미지를 부각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개의 에피소드에서 보여 지는 공간(향연장)의 반복은 일차적으로 하바드 학파가 구전문학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반복의 의미에 어느 정도 부합함을 보여 준다. 하지만 에피소드에 내포된 영웅주의 행동관인 복수의 실현과 수동적 여인의 이미지 설정 등을 위해 도입된 복잡하고 정교한 어휘 조합 등은 단순 반복의 의미를 넘어선 글 문학의 자취로 보여 진다.

III-2. 구전문학의 답습과 그 한계: 운페르드 막간극을 중심으로

『베오울프』시가 구전문학의 전통을 답습하지만 특히 영웅주의 행동철학의 핵심 요소인 영웅의 정체성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영웅들 사이의 경쟁의식은 고도의 심리적 요소를 내포하게 되므로 정교한 어휘

6) 문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2028행 ðy의 도구격 사용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왜냐하면 *mid mundum,* 'with hands'(Beo: 1461)처럼 전치사 *mid*의 사용만으로 전하고자 하는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을 전제로 하는 시인의 의도와 기교가 드러나게 된다. 운페르드 막간극으로 간주되는 다음의 예문은 『베오울프』가 구전문학의 요소를 포함하며 동시에 글 문학에서 발견되는 심리적 갈등 구조를 배경에 깔고 있다.

Unferð maþelode, Ecglafes bearn,
þe æt fotum sæt frean Scyldinga,
onband beadurune; wæs him Beowulfes sið,
modges merefaran, micel æfþunca,
forþon þe he ne uþe, þæt ænig oðer man
æfre mærða þon ma middangeardes
gehede under heofenum þonne he sylfa: (*Beo* 499-505)

덴마크 왕의 발 밑에 앉아 있던 에즈라프의 아들인 운페르드는 **비밀스런 분쟁의 말**을 퍼뜨렸노라. 그에게는 그 대담한 항해자인 베오울프의 원정이 커다란 유감이었으니, 이는 지상의 그 어떤 용사도 자신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노라

Eart þu se Beowulf, se þe wið Brecan ~~wunne~~,
on sidne sæ ymb **sund** ~~flite~~,
ðær git for *wlence* wada ~~cunnedon~~
ond for *dolgilpe* on deop wæter
aldrum neþdon? Ne inc ænig mon,
ne leof ne laþ, belean mihte
sorhfullne **sið**, þa git on sund ~~reon~~;
þær git eagorstream earmum ~~þehton~~,
mæton merestræta, mundum ~~brugdon~~,
~~glidon~~ ofer garsecg; geofon yþum weol,
wintrys wylm[um]. Git on wæteres ~~æht~~?
seofon niht ~~swuncon?~~; he þe æt sunde ~~oferflat~~,
hæfde mare mægen. þa hine on morgentid

on Heaþo-Ræmes holm up ætbær;
ðondon he gesohte swæsne eþel,
leof his leodum, lond Brondinga,
freoðoburh fægere, þær he folc ahte,
burh ond beagas. *Beot* eal wið þe
sunu Beanstanes soðe gelæste.
ðonne wene ic to þe wyrsan geþingea,
ðeah þu heaðoræsa gehwær dohte,
grimre guðe, gif þu Grendles dearst
nihtlongne fyrst nean bidan. (*Beo* 506-528a)[7]

그대가 넓은 대양에서 브레카와 수영 시합을 벌였던 베오울프인가? 그대들은 자부심에 넘쳐 바다에 도전했고 과도한 허세로써 깊은 바다 속에 그대들의 목숨을 내걸었었지. 그대들 둘이 바다 수영을 감행했을 때 친구나 적 그 누구도 슬픔을 초래하는 그 모험을 말릴 수 없었지. 그대들은 바닷물결을 감싸안고 항로를 헤쳐나갔지. 바닷물결을 양팔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파도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갔지. 대양에는 파도가 일었고 겨울 바다는 세차게 파동쳤지. 자네들은 칠 일 밤이나 세찬 물결 속에서 분투했지. 기력이 더 센 브레카는 그 수영에서 자네를 앞질렀지. 그리고 아침이 되자 그는 바닷물결에 의해 헤아드램의 해안으로 밀려왔지. 브론딩인들의 땅인 그 소중한 고국에 도착한 그는 아름다운 성채에 다다라 그곳에서 백성과 궁궐 및 보물들을 소유하게 되었지. 베안스탄의 아들 브레카는 자네와의 맹세를 충실히 이행했네. 그러므로 어느 전쟁에서나 그 무서운 격랑을 헤쳐낸 자네라고 할지라도 감히 자네가 가까이에서 그렌델을 밤새도록 기다린다면 나는 그대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예견하네.

7) 상기 예문에서 밑줄은 '바다'를 지칭하는 동의어(변어)를, 이탤릭체는 '호언장담(영웅적 맹세)'을 뜻하는 변어를, 중간 사선은 '수영하다'의 의미를 지닌 변어를 의미한다.

위의 내용은 베오울프와 브레카가 물결이 거센 바다에서 수영 시합을 벌였는데 브레카가 승리하여 고국으로 금의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화자인 운페르드는 덴마크에 침입한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등장한 베오울프에게 이전의 실패한 전적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의 모험에서도 다시 실패할 거라는 예견을 하고 있다. 내용을 측면에서 보면 매우 단순하지만 이를 구성하는 어휘 조합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우선 구전문학을 규정하는 운율의 규칙성을 살펴보면 이 구문은 두운이라는 매우 규칙적인 운율을 배경에 깔고 있다.

톨킨(J.R.R. Tolkien) 교수의 견해를 중심으로 두운에 대한 정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Tolkien 1963: xxxv-xxxix). 고대 영시에서는 중간휴지(caesura)를 중심으로 두 개의 반행이 연결되어 한 행을 이룬다. 이 두 개의 반행은 반드시 두운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데, 후반부 반행(line-b)에 있는 강음절(arsis)의 자음이 전반부 강음절에 반복되어지는 것을 두운이라 한다. 여기에는 매우 엄격한 규칙이 존재한다. 두운은 강음부절(arsis)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강세액센트가 없는 약음부절(thesis)에는 오지 않는다. 중간 휴지(caesura)에 의해 나눠지는 각 반행은 2개의 강세 음절을 가지며 2개 이상의 강세가 없는 음절을 지닌다. 고대영어는 접두사(be-, ge-등)을 제외하고 첫 음절에 강세를 지니게 되는데 이 전반부 운(韻)을 두운이라고 부른다. 두운은 철자에 의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음가에 의해 결정된다. 두운은 동일한 자음이나 자음군의 반복 혹은 모음의 반복인데 반드시 강세 음절에서만 성립된다. 자음은 같은 자음끼리, 단 이중 자음에 속하는 st, sp, sc는 각기 자기들끼리 두운을 이룬다. Ph와 f는 두운을 성립하나 sh와 s는 두운을 이루지 못한다. 일반적으로 모음은 다른 모음과 두운을 형성한다. 여기에 일정한 규칙이 성립되는데 다음과 같다. 1) 두운의 기준이 되는 핵심 두운은 두 번째 반행의 첫 번째 강세(lift)에 있다. 2) 두 번째 반행의 두 번째 강세는 두운을 형성하지 못한다. 3) 첫 번째 반행의 최고 강세는 반드시 두운을 형성해야하지만 두 번째 강세는 두운을 형성하거나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상과 같은 톨킨 교수의 정의에 따라 상기 예문의 운율을 살펴보면 예외 없이 두운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행에서는 후반부 반행의 핵심어인 Breca의 B가 전반부 반행의 *Beowulf*에

서 반복되고 있으며 506행에서는 sidne, sæ와 sund에서 507행에서는 wlence와 wada에서 508행에서는 dolgilpe와 deop에서 509행에서는 aldrum와 ænig에서 510행에서는 leof laþ와 (be)lean에서 511행에서는 sorhfullne sið와 sund에서 발견된다. 인용된 모든 행에서도 이러한 규칙성은 지속된다.

이와 같이 모든 행이 두운으로 연결됨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각 행의 핵심내용을 구성하는 핵심어, 예를 들면 506행의 경우 "바다에서 수영 시합을 했노라" 의 경우 '바다'(sæ)와 '수영시합'(sund)이 506행의 주 내용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핵심내용을 형성하는 어휘 조합이 두운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래하는 시인은 시의 내용을 형성하게 되는 핵심 어휘를 구상하게 될 것이며 동시에 이 어휘들이 예외 두 개의 반행에 걸쳐 두운을 형성하도록 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래하는 시인의 이러한 외형(반행에 걸쳐 형성되는 두운)과 내형(어휘 조합으로 형성되는 내용)의 이중적 복합구조는 비단 506행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운페르드 막간극에서 뿐만 아니라 『베오울프』 전체 3182행 중 과잉음절을 지닌 몇 행을 제외한 모든 행에서 예외 없이 발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외형과 내형의 조합은 구전문학의 전통을 뛰어 넘는 글 문학에서 발견되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퇴고(推敲)의 과정으로 간주되며 구전문학의 특징인 듣고 저장-습작-낭송으로 특징지어지는 구전문학의 전통을 넘어선 글 문학에서 발견되는 시간을 두고 수없이 반복되는 퇴고의 과정을 상기시킨다. 이러한 글 문학적 요소는 다양한 변어(variation)의 사용에서도 발견된다. 일차적으로 다양한 변어의 사용은 밀만 파리가 규정한 구전문학의 특성에 포함되기 때문에 고대영시 역시 부분적으로 구전문학의 요소를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베오울프』에서 보여 지는 변어 혹은 동의어의 사용은 단순한 반복의 의미를 넘어서 고도의 논리성과 응축된 함의를 내포하기 때문에 이 역시 글 문학에서 발견되는 정교한 어휘 조합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다.

고대영어의 특성을 논할 때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가 바로 변어이다. 동일한 대상이나 동일한 개념을 다른 어휘로 표현하는 것을 변어 혹은 동격(apposition)이라 하는데 이는 시어의 조합에 있어 단조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고대시인들의 풍부한 어휘력을 입증하는 요소이다. 이 동격(변어)의 정의에

있어 호즈스(John Hodges)와 휘튼(Mary Whitten)은 “명사나 명사 대용어가 다른 명사나 명사 대용어와 이웃하여 지칭하는 대상의 정체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한다(Hodges & Whitten 425).[8] 하지만 고대영시 작시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변어 혹은 동격이 단지 즉흥시로 간주되는 구전문학의 요소로만 간주된다는 데에는 많은 회의를 자아내고 있다. 고대영시에서 보여 지는 변어의 사용은 매우 체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는 물론 작품 전체와 연결되는 통합적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 시점의 상황 묘사를 염두에 두고 읊어지는 구전문학의 전통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물론 시의 단조로움을 덜기 위해 의도된 변어도 있겠으나 많은 경우 변어의 사용은 작품 전체를 유기적으로 통합시키려는 시인의 의도에 의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많은 경우 변어는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한 개념이나 사물 혹은 인물의 성질, 특성을 구체화시키는데 기여한다. 한 인물에 21개 이상의 형용어구가 사용되고 있으며 동시에 형용어구를 포함한 반행이 다음 반행과 두운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은 시인이 두운 작시법이라는 고도의 외형적인 제약 속에서 정교한 어휘조합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흥시에서 이러한 운율과 어휘의 정교한 배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회의를 자아낸다. 의도된 글쓰기(글문학)의 양태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다양하고 정교한 변어의 사용은 운페르드의 막간극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수영의 주체인 베오울프와 브레카는 두 번째 언급에 있어서는 그대 *þu*, 'you' 그대들(당신들) *git*, ‘you two'의 인칭대명사로 대체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주목할 인칭대명사의 변경이 발견되는데 베오울프와 브레카가 전반부 수영시합의 주체로 묘사될 때와 달리 후반부 브레카의 승리와 함께 고국으로 귀환하는 장면에서는 브레카가 *he* 로 강조되어 묘사된다는 것이다. *þu git he* 의 인칭대명사는 밀만 파리가 규정한 반복을 의미하지만 별다른 의미의 확

8) 단 이들의 정의는 변어를 형성하는 두 단어 사이에 접속어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다. 예를 들면 the hero of the poem is Beowulf, king of the Geats라는 문장에서 Beowulf와 king of the Geats가 동격인 동시에 변어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접속어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즉, Beowulf **was** king of the Geats는 ‘was'가 개입되어 있음으로 변어로 간주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나 수영의 주체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베오울프와 브레카가 수영시합을 한 바다는 *sæ, sund, wada, deop wæter, eagorstream, merestræta, garsecg, wylm[um], geofon yþum, holm* 와 같은 11개의 다양한 정보를 지닌 변어로 묘사되고 있다. 여기에는 *sæ*와 같은 '바다'의 의미를 직설적으로 나타내는 표현도 있지만 '대양'을 뜻하는 *wada* 가 있으며, '심해'(deop wæter) '조수 물결'(eagorstream tide streams), '바다의 길'(merestræta), '창의 길(바다의 신이 지닌 삼지창의 길), 대양' (garsecg), '끓어오르는 것'(wylm, geofon yþum) 등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바다를 지칭하는 보편적 지칭어에서부터 겨울 수영시합의 열악한 배경과 함께 모험의 험난한 과정을 드러내는 강한 시각적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eagorstream, merestræta, garsecg, wylm[um], geofon yþum* 복합명사들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심해'(deop wæter), '조수 물결'(eagorstream tide streams), '바다의 길'(merestræta), '창의 길대양'(garsecg), '끓어오르는 것'(wylm, geofon yþum), 등은 구전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형용어구로서 전형적인 복합명사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용어구는 사물이나 등장인물 혹은 주어진 상황을 더 효율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예를 들면 영웅시에 자주 등장하는 향연장은 *hringsele*(ring-hall 2840), lord-hall, *goldsele*(gold-hall 1639), clan-hall, *gifhealle*(gift-hall 837), *gestsele*(guest-hall 994), *gifstol*(gift-seat 2327)로 불린다. '황금의 홀'은 황금으로 장식된 홀의 의미가 아니라 영웅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시되는 지도자의 자질인 보물(황금)하사를 통한 신하들의 경제적 안전을 도모하는 군주의 역량을 암시하는 형용어구이다. 이와 같이 형용어구는 대부분 복합명사의 형태를 지니면서 주어진 대상의 특성을 표현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기 바다를 나타내는 다양한 형용어구의 사용은 전통적인 구전문학의 답습으로 간주된다. 상기 부분에서 형용어구의 사용은 바다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에 논의되는 *dolgilp, wlence, beot* 에서도 발견된다. 동시에 이러한 바다의 특성을 나타내는 어휘들의 강세음절에 있는 자음과 모음 음가가 예외없이 다른 반행의 강세어를 구성하는 자음과 모음의 음가와 두운을 형성한다는 사실이다. 즉 시인은 주어진 배경의 주제와 연관된 배경 설정을 위해 다양

한 변어 내지 동의어를 조합해야하는 어휘 조합 외에도 시 전체의 운율을 통제하는 두운 규칙을 준수해야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교한 작업이 단순한 구전문학의 전통에 입각한 시작술로 가능할 것인가는 많은 의구심을 남기게 된다. 이러한 복잡한 어휘 조합이 아무리 구전 문학 전통에 익숙해 있고 많은 옛 시를 기억 속에 저장해 놓았다 한들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구전 문학의 단계를 넘어서 글 문학에서 볼 수 있는 엄격한 퇴고(推敲)의 과정을 거친 결과로 간주된다. 또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은 이렇게 복잡한 시어의 조합과 배열이 시의 외형을 구성하는 두운법칙을 너무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구전문학의 한계는 인용된 부분에서 강조되는 모티브 혹은 주제의 설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상기의 인용된 부분은 영웅주의 사회에 팽배한 영웅들 간의 경쟁의식에 기인한 자존심과도 긴밀한 관계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심리적 구도는 시인이 의도적으로 설정한 도입부에서부터 잘 드러나고 있다. 다른 부분과 달리 시인은 운페르드의 등장에서부터 긴장이 감도는 분위기를 설정한다.

> 에즈라프의 아들인 운페르드는 **비밀스런 분쟁의 말**을 퍼뜨렸노라. 그에게는 그 대담한 항해자인 베오울프의 원정이 커다란 유감이었으니, 이는 지상의 그 어떤 용사도 자신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노라

이 부분은 운페르드의 성격분석에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도입부에서 시인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예가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매우 단호한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운페르드에 대한 시인의 입장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영웅주의 사회의 중요한 요소인 영웅적 업적을 갈망하는 한 용사의 과도한 성취욕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있다면 시인은 운페르드의 성격에 직접적인 비판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시인이 언급한 '그 어떤 용사도 자신보다 더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노라'에서 알 수 있듯이 운페르드의 간섭은 외지인 베오울프의 등장에 대한 견제심리의 발로이며 자신을 능가하는 영웅적 업적을 달성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

에 입각한 자존심의 문제이며 그 누구에게도 자신이 이룩한 영웅적 업적을 능가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과도한 영웅적 결의로 간주된다. 시인의 언급한 '비밀스런 분쟁의 말'Onband beadurune은 다음에 전개되는 운페르드의 화술이 결코 순탄하지 못할 것을 암시하며 동시에 그의 화술이 직설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복잡하고 정교한 화법을 내포하고 있음을 암시하게 된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운페르드는 덴마크를 구하겠다고 온 베오울프에게 매우 무례한 언사를 던지고 있으므로 '불협화음' 혹은 '평화의 파괴'라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를 떨쳐버릴 수가 없을 것이다(Bloomfield 410). 하지만 그가 사용한 핵심어들을 영웅주의 행동철학과 영웅들 사이에 팽배한 경쟁의식의 관점에서 분석하게 되면 영웅주의를 규명하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오히려 운페르드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자신이 견지해 온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우회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십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페르드의 의중은 수영시합에 참여한 베오울프와 브레카에 대한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서두에서 운페르드는 베오울프가 젊은 혈기에 의해 무모한 바다 수영시합에 참여했다고 질책하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하지만 이러한 무모한 용맹심에 대한 질책이 베오울프 뿐만 아니라 수영 상대자인 브레카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주시해야한다. 고대영어 양수형 git(you two)는 베오울프와 브레카를 동시에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은 동시에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의 주체자로 간주된다. 이어서 운페르드의 연설이 길어지면서 양수형인 git는 he(브레카)로 변하면서 브레카가 부각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주어의 급격한 변화는 수영에서 승리한 브레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다. 이제 브레카는 '브론딩인들의 땅인 그 소중한 고국에 도착한 그는 아름다운 성채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백성과 궁궐 및 보물들을 소유하게 되었지' 라는 운페르드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비난의 대상에서 이제 코미타투스의 이상적인 영웅으로 변모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브레카는 이제 비난의 대상에서 약속한 바를 이행하는 혹은 호언장담한 자신의 맹세를 행동으로 입증하는 이상적인 영웅으로까지 추앙되고 있는 것이다: "Beot eal wiðþe sunu Beanstanes soðe gelæste."(베안스탄의 아들 브레카는 자네와의 맹세를 충실히 이행했네. *Beo* 523-24)

영웅주의 사회에서의 진정한 영웅은 말(맹세)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words)과 일치한 행동(deeds)으로 즉, 말과 행동이 일치했을 때 진정한 영웅이 탄생되는 것이다. 바다 수영시합 전에 베오울프와 브레카는 아마도 경기 혹은 전투 전에 용사들이 흔히 하는 호언장담(맹세) 즉, "내가 반드시 이 시합에서 이길 것이다"와 같은 맹세를 토했을 것이다. 그런데 승리의 결과는 베오울프가 아니고 브레카에게 돌아갔다고 운페르드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운페르드는 표면적으로 브레카를 내세워 이상적인 영웅의 이미지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용사상을 투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신의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은밀하게 내비치고 있는 것이다. 즉 용사는 자신이 말한 바를 실천--맹세한 바를 행동으로 입증하면--하면 시합이나 전투의 동기가 어찌되었든 성공한 용사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베오울프에게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즉 "베오울프 그대는 그대가 브레카에게 한 맹세를 지키지 못했으므로 즉, 시합에서 졌으므로, 진정한 용사의 대 반열에서 탈락했네"라는 암시를 던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묵시적 경고는 운페르드의 마지막 말에서 극명하게 구현된다.

"그러므로 어느 전쟁에서나 그 무서운 격랑을 헤쳐 낸 자네라 할지라도 감히 자네가 가까이에서 그렌델을 밤새도록 기다린다면 나는 그대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예견하네."

이 말은 '자네가 브레카와의 시합에서 졌으므로(그대의 무용이 별 볼일 없다는 사실이 행동으로 입증되었으므로) 오늘 밤 그렌델과 맞서 싸운다하더라도 결국은 패하게 될 것이라고 나는 예측하네' 라는 속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운페르드는 베오울프든 브레카든 그들이 젊은 혈기에 무모하게 바다 수영에 참가한 자체를 비난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일 그 수영시합 자체가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그 수영시합에 참석한 브레카도 비난의 화살을 모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위에서 논의한 것처럼 브레카는 운페르드에 의해 진정한 영웅으로 묘사되며 아낌없는 찬사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있다. 와드 파크(Ward Park) 교수가 지적한대로 운페르드는 베오울프의 '영웅적 자질을 검증'하고 있는 것일 지도 모른다. 위에서 지적한대로 운페르드의 연설은 브레카의 영웅적 업적을 찬양함으로써 자신의 영웅관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행동주의 철학관이 내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페르

드의 말이 향연장의 분위기를 망치는 지극히 부정적인 말투로 간주되는 것은 운페르드의 연설 중 몇 개의 핵심어가 영웅주의와 연계되어 잘못 해석되기 때문인 것으로 간주된다.

어원에 입각하면 *onband beadurune* 는 '비밀스런 분쟁의 말을 터뜨렸노라' 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이는 운페르드의 말이 어떤 비밀스런 분쟁의 말(혹은 불씨)를 안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운페르드의 말이 어떤 비밀과 동시에 분쟁의 요소를 지니고 있는지의 여부는 핵심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응한 베오울프의 태도를 관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운페르드가 사용한 일련의 어휘들이 베오울프가 참가한 바다수영이 무모하고 젊음의 혈기에서 비롯된 성급함에서 비롯됨을 암시하고 있다. 무모함, 성급함, 어리석음 등의 의미는 *for wlence*, *for dolgilpe*, *neþdon*, *belean*, *swuncon* 등에서 엿 볼 수 있다. *Wlenco(e)*는 'vainglory' 혹은 'foolish pride' 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게 된다. 하지만 『베오울프』 전체에서 사용되는 *wlenco*는 경우에 따라서 긍정적인 영웅관을 나타내는데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lenco*는 결코 부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고 찬사의 의미와 함께 'bravery, courage, high spirit' 등의 의미로써 용사가 당연히 지녀야 할 필수적 자질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긍정적 의미의 *wlenco*는 히옐락(Hygelac) 왕의 마지막 전투에 임하는 왕의 영웅다운 기개를 묘사하는 부분에서도 반복된다(*Beo* 1205-1207). 이러한 긍정적인 의미, 아니면 최소한의 중간적인 의미--즉, 행동의 결과에 따라 판단되는 것--가 베오울프와 브레카의 수영시합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운페르드는 브레카의 수영시합 동기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던지지 않고 맹세--영웅적 기개(*wlenco*)의 발산--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동시에 진정한 영웅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베오울프나 브레카가 수영시합 전에 혹은 수영에 임한 동기를 엿 볼 수 있는 *wlenco*는 하등의 부정적 의미를 품고 있지 않게 되며

9) *onband beadurune*: 클레이버 는 '은밀한 분쟁을 드러냈다, 비밀스런 전쟁을 풀어놓았다, 호전적인 언사를 구사했다'로 해석한다(Klaeber Notes 50) BT에 의하면 *beado(u)*는 '전쟁'을 뜻하며 *run(e)*의 의미는 '속삭임, 신비, 비밀'등으로 해석된다. 어원은 OHG *gi-runi* '비밀'에서 찾을 수 있다: Winfred P. Lehmann, *A Gothic Etymological Dictionary,* Leiden-E. J. Brill- 1986, p. 287.

오히려 영웅주의 사회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영웅적 자질의 징표로 간주된다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수영시합의 결과에 따라 진정한 용사의 자질은 판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의 *wlenco*의 해석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중립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중립적 의미는 *wlenco*의 변어인 *dolgilpe*에서도 계속된다.『베오울프』시에서 *dol* 이나 *gylp*는 용사의 자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로써 자주 쓰이게 된다(예, *Beo* 2519-2521) 'Audacious 혹은 daring speech'의 의미를 지니는 *dolgilpe*는 모험에 임하기 전에 용사가 토해내는 허장성세의 일환으로서 전혀 부정적인 의미를 품지 않으며 영웅주의 사회의 관행으로 여겨진다. 다만 허장성세 혹은 담대한 발언에 그의 행동이 못 미쳤을 경우 그 용사는 진정한 영웅의 반열에 오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dol* 이나 *gylp* 역시 때론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영웅시에서는 모험의 결과에 따라 중립의 의미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베오울프를 향한 운페르드의 설전(Flyting)은 고도의 영웅주의 행동철학을 담고 있으며 다시 풀어쓰면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니게 된다: '그대 베오울프여, 호언장담은 그만두고(실제로 베오울프는 영웅주의 관습에 따라 덴마크 왕국에 도착하여 자신이 괴물인 그렌델을 감히 물리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반복했음) 브레카와 같이 실제 행동으로서 그대의 자질을 입증하기 바란다.' 이 과정에서 운페르드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극히 실증적 예를 들어 베오울프의 영웅적 자질에 일침을 가한다: "감히 자네가 가까이에서 그렌델을 밤새도록 기다린다면 나는 그대가 최악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고 예견하네." 운페르드의 이러한 함의는 베오울프의 무사적 자질에 회의를 제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베오울프의 정체성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함의는 시인이 언급한 '비밀스런 분쟁을 터뜨렸노라'와 일치하게 되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에서 보여 지는 두 영웅 사이에 전개되는 심리적 갈등 구조는 문학 작품의 구성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운페르드가 사용한 화술은 상당한 수준의 논리적 구도를 깔고 있으며 동시에 다중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청중의 이해에 따라 운페르드의 도전적 언사는 향연장의 분위기를 깨뜨리는 불협화음으로 간주되기도 하며 동시에 덴마크의 영웅적 자존심을 견지하기 위한 고도의 의도된 화술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도의

심리적 전술을 배경에 깔고 있는 운페르드의 화술은 구전문학의 전통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게 된다. 시작술의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는 글 문학의 요소로 간주되는 정교하고 복잡한 과정이 개입하게 된다. 시인은 먼저 자신의 의도한 부분의 주제--여기서는 영웅주의 행동철학인 영웅의 정체성과 경쟁의식 및 자존심을 둘러싼 심리적 갈등구조--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려할 것이며, 두 번째는 이러한 섬세한 갈등 구조를 어떤 어휘와 표현을 동원하여 드러낼 것인가를 의식할 것이며, 세 번째로 자신이 의도한 '비밀스런 분쟁의 말'에 적합한 직설적이고 문자적 해석을 탈피한 우회적인 언사를 고려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시 전체를 관통하는 두운의 일치를 위한 시어의 선택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운페르드의 막간은 구전문학의 한계를 넘어선 글 문학에서 보여 지는 시간을 두고 진행되는 정교한 퇴고의 과정을 거친 글 문학의 요소를 다분히 지니고 있다고 보여 진다.

Ⅳ. 결론

밀만 파리를 선두로 구전문학의 특징을 규명한 하바드 학파의 연구는 글 문화가 정착되기 전의 시작술을 이해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하바드 학파의 주장에 따르면 글 문화 이전의 구전문학은 주로 기억술에 의존하며 반복 효과를 노리는 독특한 문학적 기법들이 사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법들로서 상투적 문구, 형용어구, 다양한 복합명사(케닝)및 두운 등을 꼽을 수 있다. 하바드 학파의 연구는 유고슬라비아의 현지답사를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호머의 『일리아드』와 『오딧세이』를 분석함으로서 어느 정도의 확정된 틀을 형성하고 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최초의 고대 영시인 『베오울프』역시 이러한 구전문학의 전통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베오울프』는 일정한 운율인 두운의 적용과 형용어구와 상투적 문구의 사용에 있어 하바드 학파의 분석 틀에 잘 적용되고 있다. 특히 『베오울프』에서는 반복의 효과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바다와 향연장의 반복에서 두드러지며 '누가 격식에 맞춰 말을 토해냈다' 와 같은 상투적 문구와 사물과 인물의 특징을 나타내는

형용어구의 사용에 있어서도 발견된다. 하지만 고대 영시인 『베오울프』는 구전문학을 특정 짓는 이러한 외형적인 요소 외에도 작품의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의 설정에 있어서도 반복효과는 발견되고 있다. 예를 들면 영웅주의 행동관의 주요 요소들인 복수에 대한 결의, 에토스, 보물 하사, 명예에 대한 열망, 영웅적 맹세 등이 『베오울프』에서 수 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주제나 소재들이 자주 사용되는 것 역시 구전문학에서 기대되는 반복효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그 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로서 운페르드의 막간극에서 다루어지는 운페르드와 베오울프 사이에 전개되는 심리적 갈등 구조를 형성하는 정교한 어휘 조합은 단순히 기억술에 입각하여 즉흥적으로 지어내는 구전문학의 형태가 아닌 시차를 두고 꼼꼼히 진행된 퇴고(推敲)의 과정을 거치는 글 문학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영웅적 정체성을 생명으로 간주하는 영웅주의 사회에서 운페르드는 외지인 베오울프를 향해 그의 실패한 과거를 지적하면서 그렌델과의 격투에서 베오울프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논리정연한 운페르드의 어법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교한 어휘 구성 등은 글 문학 과정에서 엿 볼 수 있는 요소들로 간주된다. 이와 같은 요소들은 스칸디나비아를 배경으로 형성된 설화 내지 민담이 영국에 전해져 노래로 전승되어지다가 8세기 무렵에 글 문학에 정통한 시인에 의해 글 문학으로 정착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 용 문 헌

Alexander, Michael, trans. *Beowulf.* Harmondsworth: Penguin, 1973.

Ayres, H M. "Finn Episode." *Journal of English and Germanic Philology* 16 (1917): 282-95.

Bloomfield, Morton W. "Beowulf and Christian Allegory: An Interpretation of Unferth." *Traditio* 7 (1949-51): 410-15.

Bonjour, Adrien. *Twelve Beowulf Papers: 1940-1960 with Additional Comments.* Geneva: U of Neuchatel P, 1962.

Bosworth, Joseph ed. and T. Northcote Toller. ed. and rev. *An Anglo-Saxon Dictionary.* Oxford: Oxford UP, 1882-98.

Britton, G. C. "The Characterization of the Vikings in The Battle of Maldon." *N&Q* 12 (1965), 85-7.

Brodeur. *The Art of Beowulf.* Berkeley: Berkeley UP, 1971.

Burlin, Robert B and Edward B Irving Jr. eds. *Old English Studies in Honour of John C. Pope.* Toronto and Buffalo: U of Toronto P, 1974.

Chambers, R W. *Beowulf: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the Poem with a Discussion of the Stories of Offa and Finn.* 3rd ed. Oxford: Oxford UP, 1954.

Chickering Jr, Howell D. *Beowulf: A Dual-Language Edition.* New York: Anchor Books, 1977.

Clark Hall, John R trans. *Beowulf and the Finnesburg Fragment.*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63.

Garmonsway, G N and Jacqueline Simpson. *Beowulf and its Analogues.* London: Dent, 1980.

Graves, Robert. *The Crowning Privilege.* The Clark Lectures 1954-1955. London: Cassell, 1956.

Hodges, John C and Mary E Whitten. *Harbrace College Handbook*. 8th ed. New York, 1977.

Irving Jr, Edward. B. *Rereading Beowulf.* Philadelphia: U of Pennsylvania P, 1989.

Kendal, Calvin B. *The Metrical Grammar of Beowulf*, CSASE 5. Cambridge: Cambridge UP, 1991.

Klaeber, Fr. *Beowulf and the Fight at Finnsburg.* 3rd ed. with 1st and 2nd supplement. Boston, MA: Heath, 1950.

Langer, Susanne. *Feeling and Form.* London: 1953.

Lord, Albert B. *The Singer of Tales.* Cambridge, MA: Harvard UP, 1960.

Magoun Jr, Francis P. "Oral-formulaic Character of Anglo-Saxon Narrative Poetry," *Speculum* 28 (1953): 446-67.

Lehmann, Winfred P. *A Gothic Etymological Dictionary,* Leiden: E J Brill, 1986.

Nicholson, Lewis S and D W Frese, eds. *Anglo-Saxon Poetry: Essays in Appreciation.* London: London UP, 1975.

Parks, Ward. *Verbal Duelling in Heroic Narrative: The Homeric and Old English Traditions.* Princeton, NJ: Princeton UP, 1990.

Renoir, Alain. *A Key to Old Poems: The Oral-Formulaic Approach to the Interpretation of West-Germanic Verse.* London: London UP, 1988.

Robinson, Fred C. "Two Aspects of Variation in Old English Poetry." *Old English Poetry: Essays on Style*. Ed. Daniel G. Calder. Berkeley: Berkeley UP, 1979.

_____, *Beowulf and the Appositive Style*, Knoxville: The U of Tennessee P, 1987.

Sievers, Edward. *Altgermanische Metrik*, Berlin: Halle, 1893.

Shippey, T A. *Old English Verse.* London: Hutchinson U Library, 1972.

Swanton, M J. *Crisis and Development in Germanic Society 700-800*. Goppinggen: Kummerle Verlag, 1982.

Wrenn, C L, ed. *Beowulf.* London: Harrap, 1984.

Wyatt, A J. *Beowulf and the Finnsburg Fragment*. Cambridge: Cambridge UP, 1914.

Abstract

Components of Oral Literature and Its Limit in *Beowulf*

Lee, dongill

The poet of *Beowulf* is keenly aware of the importance of the heroic spirit running beneath the poem. His art of composition shows that he endeavors to deliver such spirit by means of diverse literary devices such as formulaic expression, alliteration, epithet and variation, etc. Concerning the art of composition in *Beowulf*, scholarly view is divided into two, one is that the art of improvisation is firmly grounded upon the poet's control of traditional components, and the other is the poet is faithfully following the tradition of oral literature suggested by Milman Parry and his followers.

I believe that the composition of Old English Poetry was much influenced by the techniques of oral poets, but I contest the supposition that Old English Poetry was purely based on oral tradition. Instead, I believe that Old English Poetry from outset bears specific features of written literature as has been proven in *Beowulf* and other Old English poems. The complicated combination of words contained in Old English poems is indicative of the written rather than oral tradition. Furthermore scholars have tended to overlook the correlation between the outward (rhythm, arrangements of words, etc.) and inward (theme, motif, plots) features in the study of the nature of composition.

Creed asserts that *Beowulf* was composed orally. But the close examination on formulaic expression in Beowulf leads us to assume that the composition of *Beowulf* and other Old English poems far exceed the

scope of oral tradition. One of the common features in oral composition is the use of pleonasm, which is called variation or apposition in Old English scholarship. The singer repeats the idea in the second half of the line: 'He spoke, he uttered a word.' This example illustrates that the object of a verb forms an integral part of the verb formula, and shows as well how and why pleonasm is so common in oral style. In general, Old English poetry follows this pattern of pleonasm, but contains more complicated and various patterns than oral style. Most of all I believe those outward features such as alliteration and epithet are closely related to the meaning of poems. I suggest that relationship can't be conceived in oral literature and hence such an organic structure can only be conceived in written literature.

Key words: elements of oral literature, repetition, Unferth's Intermezzo, the limit of oral literature, heroic idealism
구전문학 요소, 반복, 운페르드 막간극, 구전문학의 한계, 영웅주의 행동철학

논문접수일: 2012. 11. 23
심사완료일: 2012. 12. 11
게재확정일: 2012. 12. 15

이름: 이동일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문학과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영문학과
이메일: dongbeo@hanmail.net